

-는 편이다, -은/ㄴ 편이다

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express a tendency rather than making an assertive and clear statement of a fact, which literally means 'on a certain side'. It's often used with some adverbs like '많이' (many, a lot), '자주'(often) etc. After verbs, we use '-는 편이다', After adjectives, we use '-은 편이다 (if it ends in a noun) / -ㄴ 편이다 (if it ends in a vowel).

- 만 원이니까 좀 비싼 편이에요. (It's 10000 won, so it's kind of expensive)
- 일주일에 두 번쯤 영화를 보니까 자주 보는 편이에요. (I tend to watch a lot of movies, about two times a week)

※ '-는 편이다, -은/ㄴ 편이다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100미터에 13초면 빠르다 → _____.
2. 제 언니는 키가 작다 → _____.
3. 살이 잘 안 찐다 → _____.
4. 친하지 않지만 좀 알다 → _____.
5. 이 정도면 술을 많이 마시다 → _____.
6. 왕경 씨는 일찍 출근하다 → _____.

※ '-는 편이다, -은/ㄴ 편이다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가 : 운동 자주 하세요?
 나 : 네,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하니까 자주 하는 편이지요.

1. 가 : 부모님하고 가까워요?
 나 : 네, 저는 _____.
2. 가 : 너 초등학교 때에도 그렇게 키가 컸어?
 나 : 아니, 그때는 _____ 고등학교 때 많이 컸어.
3. 가 : 노래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?
 나 : 아주는 아니지만 뭐 _____.
4. 가 :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?
 나 : 네, 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_____.
5. 가 :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값이 좀 내렸나요?
 나 : 아니요, 세일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_____.
6. 가 : 술 잘 마셔?
 나 : 아니, 한 잔만 마시면 취하니까 _____.



답

※ '-는 편이다, -은/니 편이다'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100미터에 13초면 빠른 편이다.
2. 내 언니는 키가 작은 편이다.
3. 살이 잘 안 찌는 편이다.
4. 친하지 않지만 좀 아는 편이다.
5. 이 정도면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.
6. 왕경 씨는 일찍 출근하는 편이다.

※ '-는 편이다, -은/니 편이다'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부모님하고 가까운 편이에요.
2.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
3. 잘하는 편이야.
4.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.
5. 값이 비싼 편이에요.
6. 못 마시는 편이야.